

## ‘지하 전당’ 유지 종합계획 9월에

박광태 시장-이병훈 단장 의견 접근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골격을 담은 종합계획이 오는 9월 중순까지 수립되며,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대국민 선포식이 열린다. 또 지하위주로 설계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화관광부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2일 박광태 광주시장과 만난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보였던 사안들에 대해 박 시장과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문광부가 그동안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 보강과 외부 주차장 확보, 오페라 전용극장(전문 공연장) 건립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종합계획 수립이 늦어졌다.

### 22일 광주 최종 공청회

이 단장은 “종합계획 수립이 9월을 넘기면 대선정국으로 들어가 어려움이 큰 만큼 공청회를 거쳐 9월 중순에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대국민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7일 서울 공청회와 22일 광주 공청회를 통해 마지막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공사 발주가 늦

어지면 사업 첫해부터 예산(400억원)이 불용처리돼 향후 사업이나 예산확보가 위축될 것”이라며 **상징물 규모가 관건**이다. “현재 설계가 30% 수준이어서 기공식은 어려운 만큼 실시설계와 문화재 발굴이라도 마무리해 공사발주라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 보강과 관련 “설계 기본안은 그대로 존중하겠다”면서 “기능을 보완할 상징물을 전당 인근에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형태, 규모 등에 대해 의견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하 위주로 설계된 전당의 기본골격은 유지한 채 인근 지역에 랜드마크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세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또 외부 주차장 문제는 예산 확보를 선결조건으로 광주시와 부지를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외에 오페라 전용극장 건립은 내년에 용역을 거쳐 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시장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단 조성도 내년 전문 용역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 단장은 덧붙였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韓-탈레반 대면 협상

### 국면전환 기대... 아마디 “여성 2명 위독”

#### 故 심성민씨 시신 도착

탈레반 무장세력의 한국인 피랍사태 보름째인 2일 한-미 양국이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과 탈레반의 직접 협상이 가시화되는 등 국면 전환의 기류가 탐지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일각에서는 ‘인질-죄수’ 맞교환의 방법으로 ‘사면을 통해 석방’을 거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간 군당국이 가즈니주(州)의 피랍자 억류 추정 지역에 중무장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한국인 인질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송민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뒤 “현재 한국과 미국 모두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며 “양국은 빠른 시기에 안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다 동원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아프간 정부와 별도로 탈레반 세력과의 ‘접촉채널’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도 이날 연합뉴스와 간접 통화에서 “인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직접 대화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인질 21명은 가즈니주가 아닌 자불주, 칸다하르주, 헬만드주 등지에 분산돼 있다. 이중 16명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특히 여성인질 2명이 위중해 곤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과 탈레반의 직접 협상이 빠르면 2일(현지시간)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아프간 군당국은 인질이 억류돼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아프간 당국은 인질 구출작전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격적인 인질 구출작전을 감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특히 탈레반 지도부 은신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기지국이 1일 저녁부터 정전돼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현지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2일 보도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편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 중인 26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2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면서 안전한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ARF에 참석 중인 정성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프간에서 납치된 남한 국민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미국관 ‘성수대교’ 붕괴 사고 ▶5면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1일(현지시간) 퇴근길 러시아워에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돼 최소한 9명이 죽고 20명이 실종됐으며 60여명이 부상했다. /AP-연합뉴스

## ‘척추뼈’ 美쇠고기 검역 중단

### 광우병 위험물질...정부 ‘수입조건 개정’ 전면 보류

정부가 최근 들어온 미국산 소 척추뼈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했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2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수입된 18.7t, 1천176상자를 검역한 결과 1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 1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미국측에 이에 대한 진상 규

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소의 뇌, 내장, 적수 등 SRM과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될 수 있다. SRM은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말한다. 또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SRM이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검역 당국은 당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전면 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역 중단 조치 상황에서는 미국 수출업체와 우리 수입업체가 교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나 검역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검역 창고에 쌓이게 된다. 이번 등뼈를 포함해 그동안 검역 과정에서 수 차례 췌장, 내수용 갈비뼈 등이 검출돼 미국의 수출 검역에 큰 허점이 확인됨에 따라, 쇠고기 개방 범위를 갈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한미간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절차도 사실상 전면 보류됐다. /연합뉴스

CATS  
캣츠 타겟 발매중!!  
2007.8.7-18 / 중주점 한정  
문의: (062)220-0340-1533-0765

유망직업 '향약 57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ac.kr

## 큰생각, 큰행동, 큰꿈이 있는기업

장강, 진보, 세계를 향해 달려!

구분	기업명	주요 실적	비고
1	삼성전자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2007년 1~6월 매출 1,200억 원
2	SK하이닉스	세계 2위 반도체 기업	2007년 1~6월 매출 1,000억 원
3	현대자동차	세계 5위 자동차 기업	2007년 1~6월 매출 1,500억 원
4	기아자동차	세계 10위 자동차 기업	2007년 1~6월 매출 1,000억 원
5	LG전자	세계 10위 전자 기업	2007년 1~6월 매출 1,200억 원
6	삼성물산	세계 10위 건설 기업	2007년 1~6월 매출 1,500억 원
7	SK이노베이션	세계 10위 화학 기업	2007년 1~6월 매출 1,000억 원
8	삼성생명	세계 10위 보험 기업	2007년 1~6월 매출 1,000억 원
9	삼성증권	세계 10위 증권 기업	2007년 1~6월 매출 1,000억 원
10	삼성물산	세계 10위 건설 기업	2007년 1~6월 매출 1,500억 원

대한민국 대표기업 100선 선정